

사회

“연락두절 내 가족은...” 애타는 국내 일본인들

광주·전남 이주여성·학원강사 눈물 “불안하고 무서워” 귀국 서두르기도

지난 11일 오후 일본 도호쿠(東北)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원자력발전소의 연이은 폭발 등 2·3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내 일본인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신문 및 TV, 인터넷 등을 통해 전해지는 일본 지진 속보를 지켜보면서 가족·친지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 일본인들은 귀국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미야기(宮城)현 센다이시에 가족이 있는 지역 내 일본인들은 지진으로 인해 전화와 인터넷 등 모든 연락망이 끊기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0년 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장성에서 살고 있는 효도 나옴이(여·43)씨는 “센다이(仙台)에 사는 가족이 3일째 연락이 안 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물로 밤을 새고 있다”고 절박한 심정을 밝혔다.

그는 “12일부터 연락이 된 오사카나 도쿄에 있는 친구와 친척들에게

가족들의 안부를 물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들도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광주에 거주하는 일본 결혼여성들의 모임 회원들도 연일 이어지는 사고 소식에 큰 걱정이자.

한 달에 한번씩 15명 가량이 모이는 회원들은 일본에서의 출신지가 다양해 서로 해당하는 지역의 소식을 전하며 현지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년 전 한국남자와 결혼해 광주에 거주하는 사토 아키코(39)씨는 “오늘도 일본인 친구 몇 명과 만나 일본에 거주하는 서로의 가족에 대한 안부를 전하는 얘기를 나눴다”며 “얼마 전 광주에 살다가 센다이 지방으로 다시 돌아간 친구가 있는데 현재 연락이 되지 않아 몹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역시 3년 전 광주에 온 하라다 요시에(34)씨도 “가족과 친지 등이 모두 도쿄에 가까운 이바라기(茨城)현에 거주해 지진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다가 다행히 뒷날 연락이 닿아 무사하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며 “전기도, 물도 없이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니 눈물만 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하라다씨는 이어 “한국에 혼자만 떨어져 있어 불안한 심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위의 많은 한국인들이 소식도 물어봐 주고 안부를 전해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참사가 진정될 때까지 수시로 연락하며 서로를 위안하기로 했다.

광주에서 일본어강사로 일하고 있는 가와구치 에리코(여·25)씨는 “한국화를 배우기 위해 일본에서 직장을 휴직하고 1년 정도 머물 생각이었으나 이번 지진으로 일정을 앞당겨 돌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진으로 인해 도쿄에 사는 가족들은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아무래도 불안해 가족들과 함께 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년째 광주에서 일본어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후루야 미루(여·36)씨



“누가 이 사람을...” 13일 광주시의 자매결연도시인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가 설치한 임시정보센터에서 이재민들이 덕지덕지 붙은 메모지를 앞에 서 헤어진 가족이나 친척의 이름을 찾고 있다. 센터는 13일 오후까지도 전기와 가스, 수도 공급은 물론 전화와 인터넷까지 끊겨 도시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연합뉴스

도 도쿄에 살고 있는 부모님과 지난 11일 밤 간신히 연락이 닿은 뒤 귀국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후루야씨는 “어머니가 괜찮다면 걱정하지 마라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 일본 지진 희생자 애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일본 대지진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3일 ‘하늘 아래 다 같은 생명입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북동부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나원침 (8266) 김종두



광주 서점에 괴한 침입 50만원 빼앗아 달아나

광주의 한 서점에 1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괴한이 침입해 주인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2일 밤 10시20분경 광주시 남구 백운동 이모(여·62)씨의 서점에 괴한이 침입, 이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카운터 등에 보관돼 있던 현금 40만원과 문화상품권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잠을 자려고 방안에 누웠는데 갑자기 마스카를 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서점과 연결된 집현관을 통해 들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를 쫓는 한편, 서점 인근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빵 유통기한 지났다” 10만원 걸취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팔았다”며 마트 주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 등 2명이 경찰서행.

○1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최초(37)씨·문모(여·47)씨 등 2명은 지난 7일 오후 5시에 북구 두암동 한 모(40)씨의 A마트에서 빵을 산 뒤 다음날 찾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팔았으니 구멍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5만원을 뜯어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4곳의 마트에서 현금 10만원을 받아냈다.

○노점상 동업자인 이들은 판매업자들이 유통기한 경과 사안을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경찰에 알리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

/이종철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향교 석전대제 13일 광주 남구 사직동 광주향교에서 열린 ‘춘기 석전대제(釋奠大祭)’에서 최영호 남구청장과 지역유림 등이 제를 올리기 위해 대성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석전대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성군관을 비롯해 전국 향교에서 공자(孔子)를 비롯한 선현(先賢)에게 올리는 제사의식이다. /최영호기자 choi@kwangju.co.kr

신생아 방치 사망 의사·간호사 실형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 현 판사는 13일 주의의무 소홀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광주시 광산구 오산부인과 의사 J(53)씨와 간호사 Y(여·23)씨에 대해 각각 금고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 J씨는 태반을 먹은 신생아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간호사들에게 주의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근했고, Y씨는 신생아의 이상 증상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J씨 등은 2009년 10월 25일경 분만 중 태반을 먹은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가 대량양수흡입증후군 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영호기자 choice@

장자연 편지 필적감정 내일 이후 나올 듯

‘장자연 편지’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가 14일 이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서 14일까지 필적감정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알려왔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사본 편지와 장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전 모(31)씨의 신문스크랩 등을 검토하며 진위 파악을 위한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선되면 콜팝 쏜다”

〈콜라+치킨〉
초등학생 회장선거 선심성 공약 ‘당선무효’

재선거 없이 차점자 임명
광주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회장 후보로 출마한 학생이 무심코 던진 공약 때문에 이틀 만에 당선 무효 처리되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후보가 ‘콜팝’을 당선 후 “쏘겠다”는 공약을 투표 직전 제시했음에도 학교측이 선거를 그대로 진행한 데 이어 학생들의 참여 권리를 인정치 않고 차순위 득표자를 회장에 임명키로 한 때문이다. 콜팝은 팝콘 크기 정도의 순살 치킨을 콜라와 함께 먹는 제 품으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간식이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한 초교는 지난 11일 ‘2011학년 도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회장 1명, 부회장 3명)’를 치렀다. 1~6학년 전체 학생 950여명이 표결에 참여해 총 157표를 얻은 이 학교 6학년 A(13)양이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A양이 투표 직전 최종 소견 발표에서 무심코 “제가 회장이 되면 콜팝을 사겠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학생들의 입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달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학부모들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홈페이지에 “초등학생 회장 후보가 선물제공을 약속해 당선됐다”며 “학생 선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휴일인 13일 학교선관위 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격론 끝에 A양이 부정선거를 한 것으로 간주, “당선 무효”처리하고, 145표로 2위 득표한 6학년 B군을 회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더욱이 학교측은 학생 임원 선거의 공신력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재선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데다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선거로 상처를 입게 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선거는 대다수의 학생들과 선거 출마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치르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논발두렁 태우다 산불 잇따라

합평서 70대 숨져
주말과 휴일 전남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로 1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3일 오후 3시께 나주시 문평면 대도리 한 야산에서 불이나 임야 0.1ha를 태운 뒤 소방대원들에 의해 1시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마을 주민이 밭두렁을 태우기 위해 낸 불이 야산으로 번진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3시에는 합평면 손불면 월천리 한 마을의 논두렁 주변에 주민 김모(75)씨가 숨겨놓은 것을 산불감시원이 발견,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김씨는 이날 논밭에 있는 볏짚을 태우던 중 불이 논두렁으로 번지자 미처 피하지 못해 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전자 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 기존의 습기제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방균작용을 통해 보청기의 박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지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 ★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처리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케모르케 보이는 박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